

하나됨과 나눔

“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

< 마태복음 28장 10절 >

- 여름공동체생활을 기도하며 준비하여 주십시오. 7월 29일(금)-31일(일)
- 제67기 공동체지도력훈련을 23일(토) 14:00부터 25일(월) 22:00까지 진행합니다.
- 오강자권사님의 건강과 치료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수유제일교회 여전도회 수련회가 22일(금) 우리 교회에서 모입니다.
- 교육부 주최,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설명회가 7월 22일(금)에 있습니다.

제 39 - 29 호

2022년 7월 17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영동 · 전경희 집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멋쟁이학교에서 학생들과 국어 수업을 할 때면, 꼭 빠지지 않고 다루는 시가 있습니다. 바로 김광규 시인의 '나'라는 시입니다. 이 시인의 시들은 쉬운 언어로 깊은 성찰을 뚜렷하게 드러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시를 잠깐 옮겨 본다면 이렇습니다.

김광규 시인 - '나'

살펴보면 나는/나의 아버지의 아들이고/나의 아들의 아버지이고/나의 형의 동생이고/나의 동생의 형이고/나의 아내의 남편이고/

(중략)

/그렇다면 나는/아들이고/아버지고/동생이고/형이고/남편이고/오빠고/조카고/아저씨고/제자고/선생이고/납세자고/예비군이고/친구고/적이고/환자고/손님이고/주인이고/가장이지/오직 하나뿐인 나는 아니다./과연/아무도 모르고 있는/나는/무엇인가/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나는 누구인가

시의 해석이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글의 말미는 분명한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시대와 문화, 사람을 불문하고 누구나 던져보는 질문.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사람들은 짧게는 청소년 시기에, 길게는 인생 전체를 들여보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삶에 있어 결정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격의 형성과 탐색에는, 필수적으로 '자신' 외의 다른 관계가 필요합니다. '나'를 깨닫기 위해서는 '너'가 있어야 하지요. 성경에서는 인물을 소개할 때 관계를 함께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설명하는 것은 예사요, 족보를 함께 소개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께

서도 직접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출애굽기 3:15)이라던가,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희의 하나님"(출애굽기 20:2)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존재의 정의에서는 관계를 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단독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여러 인연이 실타래처럼 엮여 형성되며, 그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위의 시에서 나왔듯이, 한 사람은 아버지인 동시에 아들일 수 있고, 더불어 학생이면서 교사일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위치와 역할에 따라 관계 또한 달라집니다. 때로는 역할들은 내면에서 서로 충돌하기도 합니다. '아들'과 '남편', '직장인'과 '시민' 같이 말이지요. 어떤 역할의 손을 들어주었던 간에, 사람 간의 관계는 역할 수행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가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거기엔 흔히 '답다' '답지 못하다'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학생 답지 못하면, 경찰 답지 못하면, 자녀 답지 못하면, 관련된 사이 또한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 곧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한다면, 그리스도인 다음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다른 것은 몰라도 가장 중요한 관계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겠지요. 모세, 사무엘, 다윗 등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듯 말입니다.

'사이'라는 말은 공간, 시간, 관계 모두를 지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신앙과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는 그분께서 부여해주신 의무와 책임을 받아들이고, 공간과 시간을 할애하며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사이입니까? 그 분 앞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무더위에 한숨 돌리면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묵상하며 우리 자신까지 돌아보는 여름 되시길 바랍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진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 민수기 21장 8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신명기 1장

제목 :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자

인도 : 권재만 목사

찬송 : 382 390 370 546

관찰]

1. 1~5 신명기 서론
2. 6~8 출발과 목적지
3. 9~18 지도자를 세움
4. 19~33 불순종하는 백성
5. 34~45 하나님의 심판

해석]

1. 1~8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며 이루십니다.
2. 9~18 지도자의 조건 - 지혜 분별력 다경험
3. 19~45 하나님명령을 잇고 현실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적용]

1.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2. 바른 지도자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또 이러한 자로 서도록 기도합니다.
3.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기억합시다.

잔디밭 잡초제거 ~ 그 무서운 이야기

콘크리트와 아스팔트가 사이 좋게(?) 잘 조합된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 전원엔 주택을 짓고 마당에 푸른 잔디밭을 꾸미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꿈같은 아름다운 그림이다.

우리 가정도 서울에서 무림리로 이사 와서 마당에 잔디를 심었다. 1~2년 지나니 잔디가 마당에 가득하다. 봄이 되면 중간중간에 노란 민들레, 하얀 민들레, 질경이, 토끼풀(클로버)을 포함해서 이름 모를 들꽃들이 다양하게 피어난다. 참 자연스럽다는 말이 잘 어울리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푸른 마당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잔디는 점점 사라지고 마당은 이름 그대로 썩대밭이 되어 간다. 이건 아닌데~~, 고민에 들어갔다. 예초기로 모두 잘라버리고 나면 며칠은 잘 다듬어진 잔디밭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요즘처럼 비가 자주 오는 날이면 하루 이틀 사이에 온갖 잡초들이 가득한 '잡초밭'으로 다시 변해 버린다.

생각을 고쳐먹었다. 그래 잡초를 뿌리째 뽑아 버리자! 호미 한 자루와 잡초를 담은 풀 통을 들고 마당으로 아침부터 출동한다. 현관을 나서자마자 바로 잡초들이 눈에 들어온다. 잡초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마당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예전에는 잔디인 줄 알고 있었던 녀석들이 잔디가 아니고 사이비 잔디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치 잔디인 것처럼 나를 속이고 잔디 속에 자리를 잡고 무성하게 퍼져 있는 이 녀석 때문에 잔디와의 전쟁은 더욱 길어질 것 같다.

잡초를 뽑는 것은 어찌 보면 '마약 중독'과도 같다.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다. 하루에 풀 통으로 한 통만 뽑기로 계획을 세우지만 한 통이 두통이 되고 두통이 세 통이 되고..., 하루 종일 잡초와 씨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오늘은 그만하자고 마음먹고 퇴비장에 가득 쌓인 잡초더미 위에 뽑은 잡초를 버리고 돌아서면 또 잡초가 눈에 들어온다. 그럼 또 바닥에 앉아 잡초를 뽑아 대기 시작한다.

아~ 이걸 정말 무서운 이야기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손가락에 마비가 온다~. 그러나 잠시 후 잡초가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하나님은 잡초를 통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권재만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히브리서 11 : 1, 6 인도자
322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마태복음 6 : 12-13 인도자
391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민수기 21 : 1-9 설교자
309 공동체
“ 보면 살 것이다 ” 권재만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335 다함께
516(1)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한태수 김순정 / 봉헌위원 : 이승호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공동기도문

언제나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은혜 베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보기를 원하오니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보면 살 것이다

보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호르마를 점령했고 자신감 넘쳤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사막생활에 불만이 생겨났습니다. 불뱀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물어 죽였고 하나님께서는 구리뱀을 높이 달아 보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구리뱀을 본 사람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본다는 것의 의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눈으로 볼만한 것으로 만들려 노력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왕은 우상이 되어버린 구리뱀을 부숴버립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구리뱀처럼 높게 올려진 어린양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통해 봐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물과 만나를 허락하셨고 구름으로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변에 가득해서 내가 이룬 듯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잘못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며 잘못된 믿음을 바른 믿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잘 해석하도록 하나님의 훈련과정에 잘 참여합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김병우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한 학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방학을 앞에 두고 멋진 갯벌이 있는 강화도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한 주 전부터 갯벌에 관한 책도 보고, 잘 때 용감하게 자자는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또 이번 여행에는 석지인선생님과 함께 갔다왔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보면 낯설어하는데 얼마나 재밌게 놀아주시는지 아이들이 금세 친해져서 너무 너무 좋아했습니다. 많은 준비와 석지인선생님과 함께 아주 즐거운 강화도 여행을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강화도는 참 멋진 곳이었습니다. 육지에서 볼 수 없는 갯벌도 있고, 해상요새로서 외세를 막는 곳이어서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이곳저곳을 둘러봅니다. 처음으로 간 곳은 초지진이었습니다. 갯벌과 바다, 육지 그리고 초지대교를 한 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갈매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바다에 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갯벌센터와 돈오리돈대는 넓은 갯벌을 한 눈에 보면서 그 안에 사는 생태세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 갯벌 들어가기도 했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바람이 짹짹 부는데 용감한 꾸러기들은 우비를 쓰고 열심히 들어가서 조개도 줌고, 예쁜 돌도 주워서 나왔습니다. 비도 맞고, 발이 빨에 빠져도 너무 재밌어서 나올 때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이들이 여행 중 가장 좋아했던 건 수영과 불꽃놀이였습니다. 구멍조끼와 튜브로 무장해서 수영장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놀고, 놀고, 또 놀았습니다. 밤에는 스파클러로 반짝반짝 그림을 그리며 불꽃놀이를 즐겼습니다.

여행 중 아이들이 같이 놀면서 마음을 잘 모아서 신나게 노는 모습이 참 기특했습니다. 마음은 즐거워도 몸이 피곤해서 예민할 때도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사이 좋게 지냈습니다. 강화도 여행이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곳이었지만 마음이 더 성장하고, 커진 시간이었습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어린이학교는 수요일에 주제탐험의 마무리로 국립과학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어린이들은 지난 시간부터 자신이 궁금한 부분, 더 알고 싶고 흥미를 느끼는 부분을 정하고, 모둠을 나누어 미리 공부하고 과학관을 다녀왔습니다.

배움과 가르침

모두가 즐겁고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또한, 이 날은 좀처럼 만나보지 못할 역수와 같은 비를 뚫고 과천을 가고, 또 사랑방을 왔습니다.

그럼에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린이학교가 드디어 방학을 맞았습니다.

다들 방학이어서 즐거울 것 같은데... 마지막 수업을 하며 감회를 물어보니 방학을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교와 선생님, 친구들이 좋으니 방학보다는 학교에 오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니 여러가지 방학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과 개인적으로 만나 각자의 상황과 필요를 자세히 듣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며 어린이들은 방학과제 신청서를 내,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방학을 보낼지 다짐하였습니다.

금요일에는 모두 함께 학교 청소를 했고 평소보다 더 꼼꼼히 청소를 하며 한학기 마무리를 했습니다.

< 교사 : 권재만 >

멋쟁이학교

자주 가던 동해가 아닌 서해 '태안'으로 1학기 종강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 전 계속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고, 여행을 떠나는 날도 흐린 날씨였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멋쟁이들을 위한 보호하심을 믿으며 떠났습니다. 밤이나 새벽엔 비가 내리기도 하고, 활동 중에도 부슬부슬 비를 맞아가며 놀았지만 적당한 타이밍에 내린 뒤 그쳐주었습니다.

밤이면 함께 모여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공동체 훈련도 하며 서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웃고 깊게 교제한 아주 좋은,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학교에서 서로를 위해 좋았던 점,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점들을 얘기해 주는 피드백을 하고 대청소로 마무리하였습니다 :)

지난 금요일부터 멋쟁이들의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방학 동안 잘 쉬고 쑥 커서 돌아올 멋쟁이들이 기대됩니다.

이번 주부터 학교에선 선생님들이 부모님 면담을 합니다. 선생님들 화이팅 ^^!!

< 교사 : 박예나 >

레모네이드

바빴지만 행복했던 3주였습니다. 사랑하는 언니가 미국에서 8년만에 한국에 왔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보는 조카들, 언니 형부랑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 덕에 이별의 시간도 씩씩하게 보낼수 있는것 같습니다.

언니가 말로만 들었던 사랑방공동체에 와서 함께 지내고 공동식사에 참여도 했습니다. 공동체식구들의 배려가 많아 언니와의 시간을 더 즐겁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린시절 엄마보다 언니의 보살핌이 컸던 제게 언니의 존재는 참 커서 만나는 순간을 기다렸었습니다. 또 아팠던 언니의 몸 회복을 위해 만나면 건강식으로 이것 저것 해주리라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하고 이상합니다.

언니의 픽업을 위한 첫날부터 아이들의 하원과 그간 해왔던 모든 루틴들을 조정해야 하는 불편함들이 있었습니다. 바쁘게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언니 스케줄에 따라 라이드도 해줘야 하고 이것 저것 챙겨야 할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분주한 아침시간은 더 분주했고 식사도 두번씩 챙겨야 했습니다. 날씨는 또 얼마나 습하고 더운지..

최근 강의를 들으며 좋은 감사표현법을 알았습니다.

“인생이 너에게 시고 쓴 레몬을 주었다면 너는 그 레몬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즉 긍정적인 감사요법을 통해 나에게 준 기회를 기여하라는 것입니다. have to~ 해야만하는 것이 아닌 I get to 로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미래를 가져와 세면대가 막힐때 마다 불평하는것이 아니라 요즘세상에 아이들이 미래를 만질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건 대박이야! 지금 세면을 뚫으면 청소까지 하는 기회를 얻은거야! 라는 매직기법입니다.

쉽게 만날 수 없는 언니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건 꿈같은 일이야. 그 꿈이 실현된거야./ 맛있는 밥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참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면 불만을 감사함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니 순간 순간이 참 즐겁고 기뻐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 소중하고 감사했습니다. 생각을 바꿔 행동으로 옮기면, 지금보다 좀 더 수월하고 소중하게 살아질 것입니다.

이제 아이들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네요. 아싸.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디아코니아사랑방 차태옥 사모

<수요 정오기도회>

말씀 : 히브리서 11장 7-10절

인도 : 이용신 장로

기도 :

1.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3월 중순에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에서 러시아식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러시아로 편입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을 바라는 서방 세력의 압력으로 최악의 경우는 우크라이나가 분단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쟁의 씨앗을 남기지 않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중단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여주 새터마을 교회>

1) 소명(복한선교)을 위해 필요를 채워주소서.

2) 리모델링 작업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3) 흩어져있는 새터마을식구들이 자신의 삶을 잘 정리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1) 여행 중인 공동체 학교들이 좋은 경험을 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2) 여름공동체생활을 위해

3) 오강자 권사님의 검사 결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생활공동체 소식>

사랑방공동체 학교가 종강을 맞이하여 꾸러기들은 강화도에서 멧쟁이들은 태안에서 종강 여행을 했습니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 공동체 식구들이 열심히 마음을 모아 기도해주신 덕분에 좋지 않은 날씨에서도 여행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두분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교육공동체 위원장이신 서병욱 집사님과 김종필 집사님이 태안까지 방문해주셔서 멧쟁이들을 격려해주셨습니다.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준비해주셔서 저녁 후식으로 맛있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번 주는 수유제일교회에서 금요일에 방문하는 일정이 있고, 공동체지도력훈련과 여름공동체생활을 위한 환경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아침기도와 수요정오기도회 때마다 공동체의 여름 일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으로 섬기는 공동 식구들입니다.

< 장영미 전도사 >